

11/23(월) 사사기 묵상 19

사사기 5:14-22

사사기 5장에 기록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열두지파로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사사 드보라가 하솔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일심단결 연합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파들의 연합

가나안 하솔왕 야빈이 다스리던 장소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지금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평야 지대였습니다. 하솔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갈릴리 지역을 지배했던 도시 국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솔왕 야빈에 의해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삿 4:2-3,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4장은 가나안 왕 야빈의 손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펼쳐진 것처럼 말씀했지만 사사기 5장에 나타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연합한 지파들의 면면을 보면, 모두 북쪽 지방에 사는 민족들로서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14절), 마길에서 다스리는 자들 즉 므낫세 지파(14절), 스불론 지파(14절), 잇사갈 지파(15, 18절), 납달리 지파(18절)가 참여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쪽의 베냐민 지파도 참여했지만 그들은 일부 만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14절,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당시 이스라엘은 통일된 하나의 단일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각 지파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집중된 세력이 없다 보니 그만큼 적들의 공격을 받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삿 4:10절에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바락이 일 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전쟁을 했다는 것은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에 속한 군인들의 숫자를 모두 합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당시로서는 대단한 병력의 규모였던 것입니다(삿 4: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비록 모두가 연합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 내부의 적인 가나안인들과 싸우기 위해 하나로 연합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연합만큼이나 적들의 연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19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므깃도 물 가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열왕’은 북부 가나안의 여러 동맹군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최강 무기와 전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20-21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지난 시간에도 묵상한대로 하늘의 비와 바람, 폭풍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하늘의 초자연적인 기적

으로 가나안 군대를 치시고 기손 강을 범람하게 하사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시스라와 적군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뒤를 바짝 쫓게 됩니다(22절, “그 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 결과 시스라를 제외한 모든 적군들은 전멸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외부의 적들과는 달리 하솔 왕 야빈의 경우는 가나안 땅에서 이전에 다 쫓아내지 못한 내부의 적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인들의 세력은 처음에 약했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안에 기생하여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을 통해 조금씩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게 되었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을 20년간이나 점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를 중심으로 결단하여 싸움에 동참했던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인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친인척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일에 연합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모두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계속 가나안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아간의 가족을 모두 치리했던 것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거룩하신 예배(말씀, 성례전)가 신실하게 거행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모임, 사역, 조직, 그리고 헌금 집행까지 이 모든 것이 거룩하게 운영되고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의 친목 모임이나 이익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먼저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치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당회와 제직회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도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김기원<중국>, 김데이비드<오만>, 김봉춘<몽골>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4.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